

손연재 vs 야나 최고 빅게임...정보경 vs 문크바트 4번째 격돌

<리듬체조>

<여자유도>



U대회 '우먼 파워' 최강 라이벌

배드민턴 이소희-신승찬 조 中 루오 쌍둥이 자매 넘어야

그 어떤 선수도 노력없이 메달을 기대할 수 없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여자유도 간판' 정보경, '서툼속 콤피' 이소희-신승찬은 광주유니버시아드에서 우먼 파워를 자랑하지만, 그들에게도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최강 라이벌은 누구일까?

◇리듬체조 손연재 VS 야나 쿠드랍체바(러시아)=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의 빅게임은 단연 손연재다. 실력과 미모를 겸비해 인기가 폭발적이다. 하지만 그에게 금메달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넘어야 할 벽이 높기 때문이다. 손연재의 최강 라이벌은 작년 세계랭킹 1위인 러시아의 '야나 쿠드랍체바'다. 현재 세계랭킹 1위 마르가리타 마무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야나가 최강 라이벌로 떠오른 것이다.

손연재보다 3살 어린 야나는 '2013 키에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만15세의 나이로 개인 종합우승을 차지, 역대 최연소 우승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어 '2014 바쿠 유럽선수권' 개인종합 1위, '2014 페사로 월드컵' 후프·볼·곤봉·리본과 개인종합 등 5관왕, '2014 이즈미르 세계선수권'에서는 2위인 리본 종목을 제외하고 볼·후프·곤봉과 개인종합 및 단체전까지 휩쓸었다.

'러시아의 보물'로 떠오른 야나는 특히 볼과 곤봉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야나의 전매특허인 '손끝으로 공 돌리기'는 주니어 때부터 해왔던 독창적 기술이다. 곤봉은 2013년에도 이미 시간차 캐치를 받먹듯이 하는 등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고, 지난해부터는 스플릿 점프와 동시에 곤봉을 바닥에 튕긴 뒤 잡아내는 신기술도 개발했다. 최근에는 후프와 리본에서도 독

창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리듬체조 수구 조각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손연재가 월드 퀸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야나 쿠드랍체바의 벽을 넘어야 한다. 손연재는 "아시아선수권에서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낸 게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광주U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했다.

◇여자유도 48kg급 정보경 VS 문크바트 우람체체그(몽골)=한국 여자유도 경량급의 '간판' 정보경에게 몽골의 문크바트는 악연이다. 여자유도 48kg급 금메달을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여온 것이 이번 U대회가 4번째다.

이들의 인연은 지난해 몽골 울란바토르

그랑프리대회에서 시작했다. 정보경은 결승전에서 문크바트에게 패하며 금메달을 내줬고,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설욕을 다짐했지만 또 다시 준결승에서 경기 종료 10초전 '삼각 누르기'에 걸려 역전패했다. 1년 뒤, 철치부심 끝에 독일 뒤셀도르프 그랑프리대회 준결승전에서 만났지만 또 다시 패하며 문크바트는 2위를, 정보경은 3위를 기록했다.

지난 대회보다 조금 더 간격을 좁히긴 했지만, 여전히 문크바트는 정보경에게 있어 금메달을 따기 위해 넘어야 할 벽으로 남아 있다.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광주U대회의 금메달을 놓칠 수 없다는 정보경의 당찬 각오처럼 한국의 승전보가 울



여자유도 정보경과 몽골 문크바트.



배드민턴 여자복식 이소희-신승찬.

러 퍼질지, 4번째 대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배드민턴 여자복식 이소희-신승찬 VS 루오 자매(중국)=중국을 대표하는 배드민턴 여자복식조 루오 잉-루오 유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세계 랭킹 3위의 쌍둥이 자매다. 지난 2012년 호주오픈그랑프리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얼굴을 알린 뒤, 2013 인도네시아오픈그랑프리, 2014 중국 마스터즈 그랑프리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휩쓸며 배드민턴 여자복식의 차이나파워로 부상했다.

21살 동갑내기인 이소희-신승찬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한국여자 주니어 서툼속의 '간판'으로 주목을 받았던 신예다. 2011년과 2012년 세계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

회에서 연달아 여자복식 1위를 차지했고, 2012 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복식 결승에서는 중국의 유샤오한-황아중 조를 역전승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2013 카잔U대회에서는 여자복식 3위와 단체 1위를, 2014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는 여자복식 3위를 차지했다.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이흥대-유연성 조와 함께 한국 배드민턴을 세계에 알린 주역이다. 세계랭킹 10위인 이소희-신승찬 조는 세계랭킹 3위인 루오 자매를 광주U대회에서 만난다. 이번 U대회 뿐 아니라 내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U대회 이모저모

개폐막식 입장권 소지자·선수·심판 등 시내버스 무료 이용

광주시는 24일 "광주 U대회 기간동안 선수, 심판, FISU 관계자 등 U대회 패밀리와 개·폐막식 입장권 소지자는 광주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U대회 기간 관광, 쇼핑을 희망하는 선수, 심판, 미디어, FISU 관계자 등 U대회 패밀리 1만3000여 명에게 광주시내버스 무료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U대회 패밀리는 탑승할 때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발급하는 AD카드를 제시하면 26일부터 7월17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시민 편의와 주경기장 주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입장권을 제시하는 개막식 관람객은 7월3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폐막식 관람객은 7월14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U대회 기간 선수촌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선수단의 교통 편의 확보와 쇼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토교통부 7개 국내 공항 항공보안등급 상향 조정

국토교통부는 24일 "7월 3~14일 광주와 전남·북, 충북 일원에서 열리는 '광주 U대회'를 앞두고 7개 공항의 항공보안등급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7개 공항은 인천·김포공항과 광주·무안·여수·군산·청주 공항이다.

이들 공항의 항공보안등급은 대회 개최 7일전인 6월 26일부터 대회종료 3일 후인 7월 17일까지 22일간 '관심'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 등급으로 강화된다. 특히 선수단

의 주된 이동경로로 이용되는 광주·무안공항의 등급은 7월2~4일과 7월13~15일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 등급이 된다.

보안등급이 상향되면 휴대전화, 위탁하물 등에 대한 개봉검색 비율이 높아지고 터미널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순찰 경비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광주·무안공항은 승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을 감안해 보안검색요원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삼성전자 U대회 광고판 설치

삼성전자는 24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앞두고 광주 송정역 KTX 역사와 광장 등 광주 시내 곳곳과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 인천공항역 등에 대형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광고판에 유니버시아드 캠페인 테마인 '서로를 빛나게(You Light Me Up)'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에어컨·냉장고·PC·TV·휴대전화 등 총 8종 9000여대의 전자제품을 지원한다. 임동룡기자 exian@

하찮은 식재료, 그림 속 들어가 예술이 되다



(118) 요리

최근 TV에서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떡방' '국방'이 대세라 요리하는 남자들이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 한다. 딸아이의 열광에 이끌려 함께 본 요리 프로그램에 당당히 빠져들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일품요리를 완성하는 '요리 배틀'은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셰프들의 현란한 솜씨에 감동이 밀려든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이 이토록 드라마틱하고 예술적일 수 있을까 싶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찬탄은 비단 요점 사람들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동서고금을 통해 화가들은 음식이 있는 식탁을 자주 그렸고, 식재료들을 정물화

남긴 이름난 작가들도 많기 때문이다. 세잔, 고흐, 달리, 피카소,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은 새로운 화풍으로 한 시대를 앞서 이끌었던 대표적인 화가들이지만 음식은 소재로 창작 영역을 넓혔던 이들이기도 하다.

1863년 나폴레옹 3세의 승인을 받아 열린 '낙선자 전시회'에 '폴밭 위의 점심식사' '올랭피아'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고 당시 미술계에서 스캔들의 중심에 섰던 에두아르 마네(1832~1883). 그의 '아스파라거스 다발'(1880년 작)도 지극히 평범한 소재라서 놀라움을 준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19세기 프랑스에서 단지 식재료에 불과한 아스파라거스가 마네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새삼스럽게 미적 대상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마네의 상상력을 높이 산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저서 '영혼의 미술관'에서 이



마네 작 '아스파라거스 다발'

작품에 대해 "보잘 것 없는 아스파라거스 줄기의 미묘한 개체성, 특유의 빛깔과 색조의 변화에서 소박한 채소를 구원했고,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의 한 이상을 보여 준다"고 격찬했다.

'정물은 회화의 시금석'이라 강조했던 마네답게, 작품 '폴밭 위의 점심식사'와 '올랭피아'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그 그림 속의 정물인 피크닉바구니와 꽃다발은 당시 비평가들에게 만장일치로 뛰어난 솜씨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nky를 이용한 시술/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즈를 니버비전 인레이

박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증-59153호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